

대입 논술고사 출제 · 채점 방식에 대한 고찰 -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교사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

이 원 석(상명대학교 전임강사)

《 요 약 》

본 논문은 대입 논술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을 촉진하기 위해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에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논술고사의 핵심적인 이해관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의 고등학교 교사 참여에 대한 인식조사와 함께 교사 참여에 대한 여러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논술고사 출제, 채점에의 교사 참여는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입학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고교-대학 간 연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논술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바람직한 출제·채점 방식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 대학 자율성, 고등학교 교육과정

I. 서론

논술고사가 대학입학을 위한 하나의 전형 요소로 들어 온지도 이제 20년을 넘었다. 그 동안 논술고사는 시행 초기의 실행상의 문제점, 대입전형 요소로서의 필요성 논란, 본고사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일한 대학별 필기고사로서 내신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함께 대입 전형 요소의 한 축으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논술고사의 대입전형 요소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의 팽창에 미치는 영향 등 논술고사의 시행이 우리 중등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논술고사가 대입전형 요소로서 그 영향력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겠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현행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는 것인지, 즉,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일 것이다. 만약 현행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될 수 없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입시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현재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은 논술고사는 대학에서의 수학에 꼭 필요한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될 수 있으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논술고사의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훨씬 벗어난다고 본다(이원석, 2009).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병민, 2005; 한대호, 2005; Lee, 2010). 하지만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문제는 현행 논술고사가 대학별로 시행되는 대학별 고사라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 학생선발권과의 상충 문제, 교사 참여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 적절한 교사 참여 방식 등 해결해야 할 여러 쟁점들이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대입전형요소로서의 현행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등학교 교사나 학생들의 의견, 언론 보도(경향신문, 2011. 11. 18; 중앙일보, 2011. 11. 19)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현재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논술고사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논술고사의 출제, 채점에서의 교사 참여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입전형요소로서 현행 논술고사의 도입 및 변천, 출제, 채점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논술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의 의미와 교사 참여에 대한 여러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대학별 입학시험인 논술고사의 출제, 채점에서의 교사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논술고사의 핵심적인 이해관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의 고등학교 교사 참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는 논술고사 출제, 채점에서의 교사 참여에 대한 논의와 논술고사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데 매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논술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과 이를 위한 논술고사의 바람직한 출제, 채점 방식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대입전형요소로서의 논술고사

1. 도입 및 변천

논술고사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을 위해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서술형 시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술고사가 우리나라의 대입전형제도에 들어온 것은 1986년이며 현재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내신과 함께 핵심적인 대입전형의 한 요소로서 그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논술고사의 도입과 변천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원석, 2009).

1981년부터 시작된 학력고사는 객관식 시험으로서 사실상 수험생들의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1986년 신입생 선발을 위해 각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논술고사가 대입전형의 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도입된 논술고사는 시행상의 문제점과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을 이유로 시행 2년 만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대입전형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40% 이상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각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논술고사는 국어 시험의 한 부분으로 다시 대입전형제도에 등장하였다. 이후 대학별 고사의 허용이 과거 본고사의 부작용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크게 대두되면서 정부는 1997년 국공립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제외한 모든 대학별 고사를 금지하고, 2002년에는 더 나아가 모든 대학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비롯한 특정 과목에 대한 대학별 고사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신 성적 반영이 강화됨에 따라 고등학교 내신 점수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으며 이와 맞물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소위 “상위권 대학”들은 유일하게 허용된 대학별 필기시험인 논술고사를 대학입학전형에서 수험생의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기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대학은 영어 논술, 수학 논술 등 다양한 형태로 논술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5년 서울대학교가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계획’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고 다른 상위권 대학들도 이른바 “통합형” 논술고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본고사 부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①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②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③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④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논술고사에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학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본고사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논술 문제 출제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대입 자율화를 선언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입전형 요소로서 논술고사는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하였다.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밝히고 실제 2008학년도 고려대학교 자연계 논술에서는 적분과 벡터를 이용한 수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연세대 자연계 논술도 함수와 미적분을 활용한 수학 실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중앙일보, 2008. 1. 11a). 또한 인수위원회에서 2008년 1월 22일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업무가 교육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 이관되었고, 대교협 이사회는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논술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기로 공식 확정하였다(중앙일보, 2008. 2. 5). 이에 따라 주요 대학의 논술고사 문제는 과거 영어 논술, 수리 논술과 같이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또한 그 난이도도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논술고사의 "본고사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1학년도 전형에서 연세대는 일반전형 중 70%를 뽑는 우선 선발에서 논술을 80% 반영하였으며, 고려대는 일반전형 중 50%를 뽑는 우선선발에서 논술을 100% 반영하는 등 대학입학 전형에서 논술고사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매일신문, 2010. 10. 26).

2. 논술고사 문제 유형의 변화와 통합형 논술고사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별 논술고사 문제 유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몇몇 학위 논문(예를 들어, 김영근, 2011; 리아람, 2010; 정인희, 2008; 조경환, 2009)이 그 동안의 논술고사 문제를 유형화하여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김영근(2011)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논술고사 문제의 유형을 시기별로 크게 ① 고전 지문을 통한 자료 제시형 논술(1997-1999), ② 장문의 논제와 요구 사항을 갖춘 자료형 논술(2000-2003), ③ 영어 논술, 수리 논술 등 다양한 형식의 논술(2004-2006), ④ 통합교과형 논술(2007-) 등으로 나누었다. 1997년부터 논술고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고전 제시문을 주고 이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이를 토대로 논술을 하는 자료 제시형 논술로 변화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 들어와 고전 뿐 아니라 현대문, 소설 등을 포함하여 보다 긴 제시문과 함께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전형요소로서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대학이 논술고사의 변별력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1년에 수시 모집과 특별 전형이 도입되고 2002년에 정부가 모든 대학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에 대한 대학별 고사를 전면 금지하면서부터 논술고사 문제 유형은 또 다시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영어 논술, 수리 논술 등의 도입이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2008학년도부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실시하면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주요 대학들은 현재 통합형 논술고사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주요 대학들이 표방하고 있는 통합형 논술고사는 특정한 교과목에 대한 지식의 서술이 아니라 인문계열은 언어, 역사, 문학, 철학 등을 연계하고,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인문 영역 등을 서로 연계하여 교과 간 소통 속에서 학생들의 분석력, 비판력, 이해력 등 종합적 사고 능력을 보다 잘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문제 유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형 논술고사의 도입은 그 명시적인 취지와는 달리 통합형 논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2002년 이후 주요 대학들이 실시한 영어 지문이나 수학적 내용을 포함한 논술 문제에 대한 본고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논술고사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혼란을 가중하고 본고사 논란을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리아람(2010)은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리 논술을 시행한 20개 대학의 수리 논술 문제를 ‘출제 유형’, ‘문제 유형’, ‘답안 형식’, ‘답안 작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각 기준별로 비중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출제 유형별로는 제시문 자체가 수학 문제인 ‘문제 논술’이 38.0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문제 유형별로는 ‘자료 제시형’이 79.3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답안 형식별로는 서술형이 76.09%로 논술형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답안 작성 기준으로 보면 제시문에서 나온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또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요한 수식의 계산이나 증명 등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는 ‘입장표명 및 근거 제시’가 59.78%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리아람(2010)은 2010학년도 대입 수리 논술고사는 통합교과적 사고력보다는 수학의 개별 지식에 대한 심화도를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시내 12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한 조경환(2009)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러한 높은 난이도의 제시문, 영어 지문, 수학적 내용을 포함하는 논술고사 문제 유형은 대학교협이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2009학년도 이후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아비투스’개념을 바탕으로 명품 브랜드의 소비 행태 분석(건국대, 인문), 아마티아 센의 ‘자유로의 발전’ 영어 원문 읽고 요지 파악, 해결책 제시(경희대, 인문), ‘벡터의 일차 변환’과 ‘확률분수의 평균, 분산’에 대한 응용(서강대, 자연), 미국 사회학 저널에 실린 영어 논문 읽고 세계적으로 표준 시간을 정해야 하는 이유 설명(이화여대, 인문) 등 서울 시내 몇몇 대학의 2012학년도 논술문제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경향신문, 2011. 11. 18).

3. 현행 논술고사의 출제·채점 방식과 문제점

현행 논술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라는 점이다. 이러한 대학별 고사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명시적 목적은 각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과 인재상, 대학의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는 핵심 역량을 가

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술고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원석, 2009).

이러한 대학별 고사인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은 현재 각 대학의 교수가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국어나 철학 등 논술, 논리와 관련된 전공 교수와 타 전공 교수들이 공동으로 출제를 하며, 채점은 출제 교수진이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나의 답안지를 2-3명의 교수가 각각 채점하여 각 채점 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동안 논술고사의 채점에 있어서는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몇몇 연구(성태제, 1994; 지은림, 1996, 2008; 채선희, 1996)가 있었지만, 출제 주체나 방식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이는 논술고사가 대학별 고사라는 점에서 그동안 학계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논술고사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서술형 시험의 출제와 채점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현재 대입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몇몇 대학의 2012학년도 논술고사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술고사 문제가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논술고사의 난이도 문제는 “논술고사의 본고사” 논란 이후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2011년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라 그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2011년 10월 수시 1차 논술고사 실시 후 대교협은 대학들에게 논술고사를 과거 본고사처럼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말고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해 출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2011. 10. 24). 하지만 각 대학의 논술고사는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과는 더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경향신문, 2011. 11. 18; 중앙일보, 2011. 11. 19).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입 논술고사와 자주 비교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그 운영에 있어서 심사위원장은 그 지역의 학구장이 지명한 대학 교수이지만 출제와 채점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출제와 관리, 채점과 사정은 각 지역 교육장학관이 지명한 중등교사들이 담당한다(한대호, 2005). 물론 바칼로레아는 일종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으로서 국가가 그 운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논술고사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문제를 출제하고자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바칼로레아의 출제와 채점 방식은 우리의 논술고사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Ⅲ.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반영과 고등학교 교사 참여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논술고사의 출제, 채점에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 집단인 고등학교 구성원과 대학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반영을 위해 출제, 채점에 교사가 참여하는 문제의 여러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1. 논술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의 의미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단순히 논술고사의 문제나 지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논술고사의 문제나 지문이 특정 교과서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통합형을 지향하는 현행 논술고사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이란 교과서로 대변되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뿐 아니라 현재 고등학교의 수업 방식, 평가 방식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수업이 단편적 지식의 전달과 암기에 치중을 하며, 평가도 객관식 시험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 비록 논술고사의 지문이 교과서에서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논술고사의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내용적 측면을 반영한다는 것 뿐 아니라 현재의 수업 방식, 평가 방식 등이 잘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은 논술고사가 그 내용의 범위와 수준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논술고사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각 대학의 논술고사가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는 대학 당국과는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Lee, 2010). 즉,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현행 논술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보았다. 이는 후술하는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판단에 대해 어느 쪽이 더 타당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실제 가르치고 배우는 고등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 구성원들은 논술고사가 본연의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정인희(2008)는 주요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물리 영역의 문항이 거의 빠지지 않았으며 특히 점과 파동이라는 물리 영역 문항이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공통으로 출제된 것을 현행 논술고사가 내용적으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로 지적하였다. 즉, 7차 교육과정에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을 모두 배우는 학생은 드물며 따라서 이러한 논술고사는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물리 I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논술고사 준비를 위해 단기간의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교사 참여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의 인식

가. 인식조사의 실시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 집단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 중 6개 학교와 서울 소재 4년제 종합 대학인 A대학을 선택하였다. 고등학교의 선택은 임의 표출 방식을 이용하였지만 가능한 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서울에서 4개, 경기도에서 1개, 그 외 지역에서 1개 학교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6개의 고등학교에서 교사 147명, 고등학교 학생 40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대학 교수는 A대학의 교수 중 4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학부모는 A대학의 논술고사 시행일에 학부모 대기실에 모인 학부모 중 133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교사 참여에 대한 견해와 교사 참여 정도를 묻는 선택형 두 문항과 교사 참여에 대한 견해의 근거를 묻는 서술형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Likert 척도를 활용한 평균, 표준편차, 빈도 등 기술적 통계를 활용하였다. 또한 집단 간 견해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기 위해 ANOVA 사후 검사 중 등분산성이 인정되고 각 집단의 표본 크기가 서로 다를 때 효과적인 Hochberg's GT2를 사용하였다(Field, 2005).

심층면접에는 서울 소재 일반 고등학교에서 국어 담당 교사와 철학 담당 교사 1명씩, 서울 소재 B대학에서 논술고사 출제의 경험이 있는 교수 2명과 입학처 담당자 1명이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이슈와 설문조사 분석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에 의해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고, 대학 교수와 입학처 담당자에 대해서는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사정상 대학 교수 1명과 입학처 담당자에 대한 면접은 전화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질적 자료로서 설문지의 서술형 문항 자료는 범주화한 후 이의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면담 자료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 결과

1)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 참여에 대한 견해

대입전형 요소로서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제대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에 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의 견해를 Likert 5점 척도의 설문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 참여에 대한 견해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평균	3.71	2.62	3.65	3.81
표준편차	0.958	1.016	1.029	0.936

참고) 1=적극 반대한다; 2=반대한다; 3=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4=찬성한다; 5=적극 찬성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집단의 견해는 그 평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대학 교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 간 견해 차이를 ANOVA 사후검사(Hochberg GT2 적용)를 통해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집단 간의 견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대학 교수와 다른 집단 간의 견해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2)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 참여에 대한 견해의 근거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학생, 학부모 집단의 견해의 근거를 묻는 서술형 문항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응답 내용 중 자신의 견해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반복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든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 참여에 대한 견해의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의 교사 참여에 찬성하는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집단 모두 가장 많이 제시하는 근거는 교사들이 고등학교 현실과 학생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교사가 참여함으로써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고등학교의 현실과 학생 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참여에 찬성을 하는 응답자들의 과반수 정도가 제시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논리는 한 고등학교 학생의 응답에서 잘 나타나 있다.

우리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건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무엇보다 우리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다. 대학교수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논술 문제를 내고 채점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의 교사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크게 ①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권 침해, ② 교사의 전문성 부족, ③ 공정성, 객관성 문제, ④ 교사의 업무가중 등을 들었다. 특히, 교사와 교수 집단은 그 반대 근거로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권 침해”를 가장 많이 언급한 반면, 학부모 집단은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학생 집단은 “공정성, 객관성 문제”를 가장 우려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특히 교사의 참여를 통해 논술고사의 준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한 고등학교 학생은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너무 무리한 답변을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지해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문제를 내보아야 학생들을 가르쳐 줄 때도 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가르쳐 줄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응답하면서 교사 참여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표 2〉 논술고사의 출제·채점의 교사 참여에 대한 견해의 근거

	찬성	반대
교사 응답: 110명 찬성: 82명 반대: 16명 분석제외: 12명	① 교사들이 고등학교 현실과 학생 수준을 잘 알(47명) ②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17명) ③ 교사와 교수(고등학교와 대학)의 입장 절 충, 보완(8명) ④ 사교육 의존도 감소(3명) ⑤ 기타(7명)	① 각 대학 자체 선발이므로 대학에 맡겨야 (7명) ②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3명) ③ 교사의 전문성 부족(2명) ④ 기타(4명)
교수 응답: 29명 찬성: 6명 반대: 20명 분석제외: 3명	① 교사들이 고등학교 현실과 학생 수준을 잘 알(3명) ② 기타(3명)	① 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율권 침해(8명) ② 현재 대학만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음(4명) ③ 고등학교 교사의 전문성 부족(3명) ④ 기타(5명)
학생 응답: 326명 찬성: 206명 반대: 52명 분석제외: 68명	① 교사들이 고등학교 현실과 학생 수준을 잘 알(101명) ②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46명) ③ 교사와 교수(고등학교와 대학)의 입장 절 충, 보완(23명)	① 공정성, 객관성 문제(21명) ② 교사의 자질 부족(16명) ③ 대학이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므로 (12명) ④ 기타(3명)

	찬성	반대
	④ 논술 부담을 줄임(12명) ⑤ 사교육 의존도 감소(8명) ⑥ 공정성 높임(7명) ⑦ 기타(9명)	
학부모 응답: 89명 찬성: 67명 반대: 15명 분석제외: 7명	① 교사들이 고등학교 현실과 학생 수준을 잘 알(38명) ②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위해(11명) ③ 논술 대비에 도움이 될 것(5명) ④ 사교육 의존도 감소(4명) ⑤ 학생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증대(2명) ⑥ 기타(7명)	① 교사의 전문성 결여(6명) ② 공정성 문제(4명) ③ 교사의 업무 과중(2명) ④ 교육과 평가는 별개(2명) ⑤ 기타(1명)

넷째, 교사의 참여에 긍정적인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사의 참여가 논술고사의 사교육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한 학부모는 다음과 같이 응답함으로써 교사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대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아이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상과 논리를 쓰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증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술이 그냥 막연한 창작이라는 것 밖에 모르는 아이들에 이것이 끼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논술)학원을 다니라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맞는 문제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고등학교 교사도 “기초 부분의 개념과 원리 이해만 겨우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전문적인 대학의 교수들이 출제하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 속에서 사교육비만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일선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응답하면서 교사의 참여가 논술고사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보았다.

3)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 참여 정도에 대한 견해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할 경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관한 선택형 문항에서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의 응답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 참여의 정도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견해와 대학 교수의 견해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집단 모두 가장 선호하는 참여 방식은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이다. 이는 설문문에 참여한 교사의 55.8%, 학생의 46.3%, 학부모의 57.1%가 찬성한 방식이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방식은 세 집단 모두 출제와 채점은 대학 교수가 전담, 고등학교 교사는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8.2%, 학생의 12.5%, 학부모의 9%가 찬성한 것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대학 교수가 가장 선호하는 참여 방식은 출제와 채점은 대학 교수가 전담, 고등학교 교사는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참여 교수의 27.5%가 선택하였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방식으로서는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으로 10%의 교수가 이 방식을 꼽았다. 하지만 참여 교수의 57.5%가 이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았고 이는 교사 참여를 반대하는 교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수는 과반수 이상이 논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만약 참여를 해야 한다면 자문을 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표 3〉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 참여 정도에 대한 견해

참여 정도	고등학교 교사 (N=147)		대학 교수 (N=40)		고등학교 학생 (N=408)		학부모 (N=133)	
출제·채점을 모두 고등학교 교사가 전담	4	2.7%	0	0%	16	3.9%	3	2.3%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출제하고 채점	82	55.8%	4	10%	189	46.3%	76	57.1%
출제는 고등학교 교사가 전담하고 채점은 대학 교수가 전담	8	5.4%	0	0%	37	9.1%	7	5.3%
출제는 대학 교수가 전담하고 채점은 고등학교 교사가 전담	1	0.7%	0	0%	16	3.9%	4	3.0%
출제와 채점은 대학 교수가 전담, 고등학교 교사는 자문 역할	12	8.2%	11	27.5%	51	12.5%	12	9.0%
출제와 채점은 고등학교 교사가 전담, 대학 교수는 자문 역할	8	5.4%	0	0%	28	6.9%	9	6.8%
기타	1	0.7%	2	5%	6	1.5%	4	3.0%
무응답	31	21.1%	23	57.5%	65	15.9%	18	13.5%

다. 심층면접 결과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의 견해는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하였다. 먼저 심층면접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에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교사들은 설문조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참여함으로써 고등학교 현실과 학생 수준을 잘 반영하는 보다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아래 한 교사의 말은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해 준다.

그 대학이 뭐 어떻게 지향하느냐 인데요, 아이들 현장 수준 고려 없이 학업 수준을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애들은 그냥 자기들에 대한 고려나 배려 없이 출제된 문제를 푸는 거고, 아이들의 사고나 그런 것들이 그 문제에 반영되어서 좋은 문제를 잘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어느 단계에서든 교사를 집어넣을 거고, 참여하면 문제는 달라지죠.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문제가 나오겠죠.

반면에 심층면접에 참여한 교수들은 교사 참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들이 제기하는 부정적 견해의 근거는 논술고사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을 위한 대학별고사로서 그 본질상 교사의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과 고등학교 현실의 반영을 위해서 교사의 참여는 필요할 수 있지만 현실 여건이나 공정성 문제, 효율성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두 가지이다.

논술고사 출제·채점의 교사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아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참여하기 어렵지만 만약 참여하더라도 자문 정도에 그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출제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고, 그러나 검토의 경우는 과연 이것이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한 것 같은지 뭐 지문도 그렇고 문제 자체가 학생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정도면(괜찮을 것 같고).

또 다른 교수는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에 고등학교 교사가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시도 교육청 등 공적인 기관에서 위원회 등을 통해 논술고사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교사 참여 정도에 대해 한 교수는 “어떤 형태로 해도 될 거 같은데, 그거야 말로 대학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수 단계에 넣을 수도 있고”라고 말하며 참여 형태는 현실에 맞춰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 출제를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논술고사의 출제·채점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실제 행정을 맡는 입학처 담당자는 수능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출제 과정에서 교사가 검토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았다. 다만 실무 담당자로서 아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 교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우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교사 선정의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 참여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논술고사 출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자문단’ 같은 공식적인 자문위원 인력풀(pool)을 제안하였다.

고등학교 교사를 섭외할 때 어느 학교, 어느 교과 선생님을 섭외할지, 섭외하려고 한 분이 교사

를 할 경우 또 다른 분을 섭외하여야 하는데.... 섭외를 위한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섭외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형평성 등의 시비거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섭외의 기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 참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근거로서 '현재의 논술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사가 참여하게 되면 고등학교 현실과 학생 수준에 잘 맞는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한 교수는 "논술고사 문제의 지문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그것이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별력 때문에 지문을 조금 어렵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의 서술형 문항에서 한 대학 교수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고교 교과과정을 고려한 가운데 출제되는 것이므로"라고 응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사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한 근거에 대해 심층면접에 참가한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논술고사의 출제·채점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의 목적은 보다 좋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좋은 문제를 만들고 현실적인 문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시행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거를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교사 참여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3.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 참여의 쟁점

논술고사의 출제·채점에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 즉, ① 교사 참여는 대학의 자율성, 학생선발권과 상충되는가, ② 교사의 참여가 실제로 논술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반영을 촉진시키는가, ③ 교사 참여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교사 참여는 대학의 자율성, 학생선발권과 상충되는가?

논술고사의 논의에 있어서 학생선발권을 포함한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2005년 서울대학교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에 대한 정부와 서울대학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부터 이른바 통합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통합형 논술고사가 과거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지필고사인 본고사가 아닌가하는 논쟁이 제기되었고, 이에 교육부는 논술고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논술고사 심의위원회를 설치, 각 대학의 논술고사가 본고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여 본고사로 판정될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하였다(신중섭, 2005). 하지만 대학들은 이러한 정부의 간섭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몇몇 주요 사립대학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대교협은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논술고사를 둘러싼 논란의 주요한 논거인 대학의 자율성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2조 2항에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이라 하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치철학에 기반한 최근의 대학 자율성 논의는 개인 차원의 ‘학문적 자율성’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자율성, 즉 기관 자율성(institutional autonomy)을 의미한다(변기용, 2009). 다시 말해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이 스스로의 책임아래 학생선발, 교육과 연구, 대학운영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강병운, 김병주, 2008, p. 181)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이러한 대학 자율성의 한 부분으로서 대학이 자신이 교육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학생선발권이 대학의 자율성에서 갖는 지위는 어떠한가? 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시장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을 교육 산출의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적 투입변인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학생선발의 자율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적 요소로서 가능한 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변기용, 2009). 하지만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는 입장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대학 자율성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중등교육의 정상화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박도순, 2007).

대학별 교사인 논술고사의 출제·채점에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 학생선발권과의 충돌을 의미하는가? 즉, 교사의 참여는 대학의 자율성, 학생선발권을 침해하는가? 앞서 인식조사에서도 교사의 참여를 반대하는 교수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이유가 교사의 참여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대학의 자율성이 갖는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기관 자율성(institutional autonomy)인 대학의 자율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계를 갖는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사실 대학의 자율성은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학을 규제하려는 정부와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대학 간의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난다(신정철, 김명진, 박환보, 2007).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은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제한을 받게 된

다. 예를 들어, 대학별 입학시험이 중등교육을 왜곡하고 사교육의 팽창시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크게 제한한다면 이는 개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과 충돌하게 되고 이 경우 대학의 자율성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 참여를 통한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반영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또한 논술고사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교사의 참여는 기관의 권한인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 영역에 속하게 된다. 아울러 학생선발권은 중등교육의 정상화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박도순(2007)의 견해에 따른다면 논술고사의 출제·채점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한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에 교사가 참여하는 문제가 실제로 대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립되는 개념인가이다. 학생선발권을 침해된다고 할 때 그 침해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면 아마도 ‘출제권’일 것이다. 대학들은 입학시험의 문제를 직접 출제하여야 출제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입학시험의 문제를 직접 출제하여야 출제권을 갖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박도순, 2007). 문제 출제는 이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문제 선택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면 출제권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에 교사가 참여하느냐의 문제는 심층면접에서 한 교사가 지적하였듯이 사실상 학생선발권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논술 문제를 공동 출제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대교협 발표에 대해 대학들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중앙일보, 2008. 1. 11b).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사와의 공동 출제는 학생선발권의 침해라고 보면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건학 이념이 다른 대학들 간의 공동 출제는 각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대학의 학생선발권과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며, 만약 학생선발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입장과 같이 학생선발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 학생선발권의 한계 영역에 해당된다고 본다.

나. 교사 참여가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반영을 촉진시키는가?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를 위해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정부, 고등학교 구성원 뿐 아니라 대학 당국, 대학 교수들도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 참여가 실제로 논술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을 촉진하는지가 교사 참여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 수준에 대한 전문성을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 중 누가 더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에서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은 논술고사 문제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것 뿐 아니라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방식, 평가 방식 등이 잘 반영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실상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의 의미를 감안할 때 대학 교수들이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비록 논술고사 출제 교수가 현행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확실히 숙지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는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참여하는 것은 논술고사가 교육과정을 반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인식조사에서 교사 참여에 찬성하는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가장 많이 제시한 근거이기도 하다.

다. 교사 참여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사 참여의 세 번째 쟁점은 현행 논술고사 운영 체제에서 교사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인식조사에서 교사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학의 학생선발권 침해 외에 제기한 이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은 크게 ① 교사 참여로 인한 문제 유출, 해당 고교 학생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 공정성 문제, ② 어느 고등학교, 어느 교과목 교사가 참여할 지의 형평성 문제, ③ 고등학교 교사가 논술고사 출제·채점 등에 참여할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의 전문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학부모 집단은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학생 집단은 “공정성 문제”를 가장 우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교사 참여를 반대하는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사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 참여의 목적과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교사 참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간략히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의 문제는 시험의 보안 시스템을 잘 마련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 참여 자체가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를 가져온다고 가정하는 것은 심층면접에 참여한 한 교사의 말과 같이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교사)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되지도 않고, 만약에 공정성을 문제로 한다면 교수님들 조카도 있고 손주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거는 공정성 문제를 (말하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보안 시스템에서 문제를 만들었다면 꼭 교사여서, 외부인이어서 이 사람이 유출할 사람…. 이렇게 걱정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 분(교수)들이야말로 진짜 핵심을 쥐고 들어가는 사람들인 건데.

둘째, 형평성 문제는 인식조사에 참여한 입학처 담당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 교사 선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정 절차는 교육부 또는 대교협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등학교와 대학 관계자,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 문제는 우선 참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논술고사 출제·채점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특정 영역에 대한 고도의 지식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수준에 대한 이해이다. 이를 명확히 한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많은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입학처 담당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참여 교사 인력풀을 만들고 지속적인 연수 등을 시행하는 것도 교사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력풀은 전문성 뿐 아니라 참여 교사 선정의 형평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V. 대입 논술고사의 출제·채점 방식의 탐색

지금까지 대입 논술고사에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의 인식과 함께 관련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하에서는 현행 대학 교수 전담 방식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교사 참여의 의미와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대입 논술고사의 출제·채점 방식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현행 대학 교수 전담 방식의 문제점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현행 논술고사 출제·채점의 대학 교수 전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 보도와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논술고사 문제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풀기에는 너무 어렵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지만 대학 교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는 단순히 대학이 모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거나 출제 의도 공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둘째, 현행 대학 교수 전담 방식은 논술고사가 사교육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경우 출제에 동원된 대학 교수들은 짧은 출제 기간으로 인해 자신의 전문적인 연구

분야의 논문이나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문제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실상 사범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재직해 온 교사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다(경향신문, 2011. 11. 18). 따라서 학생들은 논술고사의 준비를 위해서는 수학능력시험이나 내신의 경우보다 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논술고사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을 각 대학의 교수들이 전담함으로써 출제·채점을 포함한 논술고사의 운영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 대학이 어떻게 출제 교수와 채점 교수를 선정하는지, 출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교수 1인당 채점에 주어진 시간과 채점할 분량은 적절한지 등이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판단 하에 결정되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행정적 편의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논술고사 운영의 비전문성,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와 수험생의 불안과 불안을 가져옴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있다.

2.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 참여의 의미와 방식

가. 고교-대학 간 연계로서의 교사 참여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교사의 참여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교사 참여의 쟁점에서 논의하였듯이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 참여를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아서 안 될 것이다.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고교-대학 간 연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교사가 지적하였듯이 우리는 논술고사 출제·채점에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의 통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대학 간 연계는 최근 대학입학전형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부각되고 있지만 이는 비단 입학사정관전형 뿐 아니라 모든 대학입학전형에서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다. 대학 당국은 대학입학전형을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기제로만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 대학입학전형이 중등교육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대학입학전형은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제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고교-대학 간 연계는 대학입학전형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사 참여의 효과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에 교사가 참여하여 함으로써 얻게 될 긍정적 효과를 살펴본다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앞서 인식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교사 참여는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논술고사 준비의 실질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둘째, 교사 참여는 논술고사에 대한 공교육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논술고사의 사교육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셋째, 교사 참여를 통해 논술고사 운영의 불투명성이 많은 부분 해소함으로써 논술고사 운영의 공정성,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의 교사 참여는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한 교사가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혐의들 있잖아요. 보통 대학하고. 예를 들어 대학에선 니네 생활기록부 진짜냐, 이런 거. 우리는 대학 쪽에다가 그거 그렇게 해놓고 외고 뽑으려고 그러면서 뭐... 논술 진짜로 객관적으로 채점이나 하나, 이런거요. 가서 보면 아마 그런 거 신뢰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그리고 대학 측에서도 고등학교 뭐 그렇게 허투루만 애들을 막 답답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대학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오해하고 있거나 혐의를 갖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되면 서로를 많이 믿을 것 같아요.

다. 교사 참여의 방식

그렇다면 교사 참여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는 <표 3>에서 보듯이 여섯 가지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다수는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의 공동 출제·채점 방식과 고등학교 교사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나머지 방식은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는 공동 출제·채점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고 교사 참여를 찬성하는 대학 교수들은 고등학교 교사의 자문 역할을 선호하였다. 아마도 이 두 가지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채택 가능한 방식일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우리는 논리적으로 대체적인 장단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각 대학이 처한 현실, 예를 들어, 지원자의 성적 수준, 지원 경쟁률, 논술고사 성적의 반영 비율, 대학의 규모 및 입학전형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심층면접에서의 한 교사가 “(교사 참여는) 어떤 형태로 해도 될 거 같은데, 그거야 말로 대학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수 단계에 넣을 수도 있고.”라고 말한 것처럼 바람직한 교사 참여 형태는 각 대학의 현실에 맞춰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이해관계 집단의 인식조사와 주요 쟁점의 논의를 통해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에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문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의 침해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논술고사의 정착을 위한 고교-대학 간 연계 방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교사 참여의 현실적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공정성, 형평성, 고등학교 교사의 전문성 문제 등은 교사 참여를 반대하는 근거가 아니라 교사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앞으로 대입전형요소로서의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근 대교협이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폐지와 함께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논술고사에 고난이도의 영어 지문을 포함하고 수학적인 지식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들을 출제하면서 이른바 논술고사의 “본고사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논술고사의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논술고사의 “본고사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본고사 논란의 핵심은 논술고사가 그 내용과 형식에서 과거 본고사와 어떻게 다른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박도순, 2007). 핵심은 각 대학이 논술고사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가에 있는 것이며, 이는 입학전형에 대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 책무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당국은 논술고사에서 전문적인 인문학의 지식이나 수학 지식을 요구하거나 높은 수준의 영어 지문을 포함하는 것이 논술고사 시행의 명시적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 사고와 높은 고등정신 능력을 가지고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본고사와 같이 국어, 영어, 수학 등 이른바 도구 과목 성적의 우수자를 변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술고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깊이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대입정책이 정부에 의해 획일하게 통제될 때는 대학입시의 영향에 의한 공교육의 황폐화,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 등 여러 교육적, 사회적 문제의 책임은 정부의 몫이었다. 하지만 5.31 교육개혁 이후 대입 자율화라는 기본 방향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합의에 따라 대입 자율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현 시점에서 대학입시에 따른 교육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대학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 이제는 정부보다 대학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입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미명하에 학력중심의 단일 잣대에 의한 ‘점수’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온 대학들의 잘못된 인식의 전환이다(박도순, 2007). 이러한 대학들의 인식 전환 없이 선진적인 대입전형제도의 정착은 사실 신화에 불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운, 김병주(2008). 이명박 정부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비교교육연구**, 18(3), 179-205.
- 경향신문(2011. 11. 18). 논술 교사들 “솔직히 나도 문제 이해하기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80005495
- 경향신문(2011. 11. 18). 푸코, 들뢰즈...대학원생도 풀기 힘든 논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80002105&code=940401
- 김영근(2011). 대입정시논술고사에 나타난 주제 분석(정시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매일경제(2011. 10. 24). 대교협 “수시 논술 어렵게 내지 말라”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sCode=21&t_uid=20&c_uid=729820
- 매일신문(2010. 10. 26). 대학입시 ‘논술 본색’ ... 2012학년도 이후 영향력 확대될 듯.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303&yy=2010
- 리아람(2010). 대입 논술고사의 수리 논술 문제 유형별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도순(2007). **한국의 교육문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서울: 원미사.
- 변기용(2009). 대학 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대안-5. 31 교육개혁 이후의 ‘시장적’ 대학자율화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6(1), 135-164.
- 성태제(1994). 논술형 고사와 예체능계 실기고사를 위한 채점자간 신뢰도 추정. **교육평가연구**, 7(1), 43-56.
- 신정철, 김명진, 박환보(2007).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정부 및 대학 간의 인식 차이. **교육행정학연구**, 25(3), 243-269.
- 신중섭(2005). 논술 고사와 대학의 자유. **철학과 현실**, 66, 116-121.
- 이병민(2005). 논술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논술시험의 사회문화적 고찰. **교육비평**, 19, 81-107.
- 이원석(2009). 논술고사는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가?-고등학교 학생, 교사, 대학 교수의 인식 조사. **교육과정평가연구**, 12(2), 31-49.
- 정인희(2008). **대입논술고사 도입취지에 비취 본 대입논술문항과 고등학교 논술 수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경환(2009). **대학입학고사의 수리논술 문제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중앙일보(2008. 01. 11a). 고려대, 논술 가이드라인 냈다.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007524&cloc=olink|article|default.
- 중앙일보(2008. 01. 11b). 대입 자율화때 논술 공동 출제.
-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007525
- 중앙일보(2008. 02. 05). 논술 가이드라인 내년 폐지 ... 대교협 이사회 공식 확정.
-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033480.
- 중앙일보(2011. 11. 19). 공교육 교사가 두손 든 대입 논술.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11/19/6346707.html?cloc=olink|article|default>
- 지은림(1996). many-facet Rasch 모형을 적용한 대입 논술고사 채점의 객관성 연구. **교육평가연구**, 9(2), 5-22.
- 지은림(2008). 논술고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1(2), 97-113.
- 채선희(2001). 논술시험 채점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방안 - 채점과정의 엄격성과 FACETS 모형에 의한 채점결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9(1), 5-29.
- 한대호(2005). 프랑스와 한국의 대학입학제도의 비교 연구. **서양사학연구**, 13, 57-130.
- Field, A. (2005).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2nd ed.)*. London: Sage.
- Lee, W. S. (2010). Percep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their parents, and teachers on the factors determining the effects of the essay test on the curriculum of high schools in Korea.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7(2), 209-232.

· 논문접수 : 2012-01-01 / 수정본 접수 : 2012-02-07 / 게재승인 : 2012-02-22

ABSTRACT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High School Teachers on Developing and Scoring Items of the Essay Test

Wonsuk Lee

(Assistant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rticipation of high school teachers on developing and scoring items of the essay test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high school curriculum on the essay test.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probed the perceptions of high school teachers, faculty members,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on participation of high school teachers, as well as major issues surrounding thi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the participation of high school teachers on developing and scoring items of the essay test should be regarded as the link of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not as the conflict of the institutional autonomy of universit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s a pivotal insights on developing proper ways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high school curriculum on the essay test.

Key Words : developing and scoring the essay test items, institutional autonomy, high school curriculum